

酒傷證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전성심한방병원

田 炳 旭

I. 緒 論

술의 暴飲과 習慣的 飲酒는 現代社會 뿐 아니라 古來로 수 많은 問題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犯罪, 事故, 生産力 減少, 精神의 및 身體的 疾患, 家庭生活的 破綻 等の 여러가지 損失을 일으키게 된다^{2,3)}.

술, 卽 酒에 對한 韓醫學的인 見解로서 <黃帝內經>^{11,12)}에서는 “酒는 水穀之精, 熟穀之液으로 其氣가 悍悍하다” 하였으며, 酒가 人體에 미치는 影響에 對하여서 朱¹³⁾는 “清香美味 既適於口 行氣和血 亦宜於體”라하여 과음하기 쉬운 이유가 이 때문이며 또한 適切한 飲酒는 사람을 이롭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飲酒過度하면 그로 因하여 여러가지 內傷諸證을 일으키는데 이를 酒傷證이라 한다²⁾. 이러한 酒傷證에 對하여 巢¹⁰⁾는 “酒性有毒而復大熱 飲之過多 故毒熱氣 滲溢經絡 浸漬臟腑 而生諸病也”라하여 過飲酒하면 諸病을 生한다하였고, <格治餘論>¹³⁾에서는 病淺하면 嘔吐, 自汗, 瘡癩, 鼻查, 自泄, 心脾痛 等を 發하고 病深하면 酒渴, 內疽, 肺痿, 內痔, 鼓脹, 失明, 喘哮, 勞嗽, 癩癩 等の 難明之病을 發한다 하였다. 또한 이러한 酒傷證의 治療에 對하여 歷代醫家^{6-9,13-17,24)}들은 發汗, 利小便, 上下分消其濕之法을 基本으로 하였다.

西洋醫學의으로도 慢性的 飲酒는 알콜中毒을 일으키고 消化器에 影響을 미쳐 嘔吐, 腹痛, 腹部膨滿, 潰瘍, 吐血 等症을 일으키며 脂肪肝, 肝硬變 等の 肝傷害를 일으키고, 興奮, 昏睡, 震顫, 幻覺, 譫妄 等の 神經系 特히 中樞神經系障礙를 惹起하며 自制力喪失, 行動의 不均衡, 甚하면 昏睡 等症을 일으키는 一連의 精神的, 身體的 異常現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¹⁻⁵⁾.

이에 論者는 個人的 精神的, 身體的 障害 뿐만 아니라 社會的으로도 損失을 惹起하게

되는 alcohol性 疾患, 卽 酒傷證에 對하여 考察하여 그 結果를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黃帝內經素問¹¹⁾

1) 厥論

酒入於胃 則絡脈滿 而京脈虛 脾主爲胃 行其津液者也 陰氣虛則陽氣入 陽氣入則胃不和 胃不和則精氣竭 精氣竭則不營其四肢也 此人必數醉若飽以入房 氣聚於脾中不得散 酒氣與穀氣相搏 熱盛於中 故熱偏於身內熱而獨赤也 夫酒氣盛而悍悍 腎氣有衰 陽氣獨勝 故手足爲之熱也

2) 病能論

帝曰有病身熱解情汗出如浴惡風少氣 此爲何病 岐伯曰病名曰酒風

2. 黃帝內經靈樞¹²⁾

1) 營衛生會篇

人飲酒 酒亦入胃 穀氣未熟而小便獨先下何也 酒者熟穀之液也 其氣悍以清 故後穀而入先穀而液出焉

2) 論勇論

怯士之得酒怒不避勇士者 何藏使然 少俞曰 酒者水穀之精 熟穀之液也 其氣悍悍 其入于胃中 則胃脹上逆 滿于胸中 肝浮膽橫 當是之時 固比于勇士 氣衰則悔與勇士同類 不知避之 名曰酒悖也

3. 金匱要略¹⁸⁾

1) 心中懊農而熱不能食時欲吐名曰酒疸

2) 酒黃疸者 或無熱臍語 小腹滿欲吐 鼻燥 其

脈浮者 先吐之 沈弦者 先下之

3) 夫病酒黃疸 必小便不利 其候心中熱 足下熱 是其證也

4) 酒黃疸 心中懊農 或熱痛 梔子大黃湯主之

4. 諸病源候論¹⁰⁾

1) 酒疸候；夫虛勞之人 若飲酒多 進穀少者則胃內生熱 因大醉當風入水 則身目發黃 心中懊農痛 足脛滿 小便黃 面發赤斑 若下之 久久變黑疸 面青目黃 心中如啖蒜齋狀 大便正黑 皮膚爪之不仁 其脈浮弱 雖黑微黃 故知之 酒疸 心中熱欲嘔者 當吐之則愈 其小便不利 其候當心中熱足下熱 是其候證明矣

2) 酒癩候；人有性嗜酒飲酒 既多而食穀常少 積久漸瘦 其病逐常思酒 不得酒即 吐多睡不得能食 云是胃中有蟲 使之然名為酒癩

3) 酒癖候；夫酒癩者 因大飲酒後 渴而引飲無度 酒與飲俱不散 停滯在于脇肋下 結聚成疝 時時而痛 因即呼為酒癖 其狀脇下弦急而痛

4) 飲酒大醉連日不解候；飲酒過多 酒毒潰于腸胃 流溢經絡 使血脈充滿 令人煩毒昏亂嘔吐無度 乃至累日不醒 往往有腹背穿穴者 是酒熱毒氣 所為故須搖動其身 以消散也

5) 飲酒中毒候；凡酒性有毒 人若飲之 有不能消便令人煩毒悶亂

6) 飲酒腹滿不消散候；夫酒性宣通而不停聚 故醉而復醒 隨血脈流散故也 令人有榮衛否澁 痰水停積者 因復飲酒不至大醉大吐 故酒與痰相搏不能消散 故令腹滿不消

7) 飲酒後諸病候；酒性有毒而復大熱 飲之過多 故毒熱氣滲溢經絡 浸漬臟腑而生諸病也 或煩毒壯熱而似傷寒 或酒漸惡寒 有同溫虐 或吐利不安 或嘔逆煩悶 隨臟氣虛實而生病焉 病候非一故云諸病

5. 聖濟總錄²⁵⁾

酒者 熟穀之液也 其性慳悍急疾 後食而入先食而出 能通關節而走膚腠 上古作湯液膠醴為不用 後世嗜之無節 或飲過度 停積不散 蘊滯于胃 散流諸脈 熏蒸臟腑 令人志亂 乃至不醒 有連日而無所覺知者 甚則中毒而為酒疸諸熱之病也

6. 儒門事親¹⁷⁾

1) 酒食不消散；夫一切冷食不消宿食酒不散 亦同傷寒身熱惡寒戰慄頭痛腰脊強 及兩手脈沈 不可用雙解之 可用導飲丸五六十九丸

2) 酒食所傷；夫膏粱之人 起居閒逸 奉養過度 酒食所傷 而致中脘留飲脹悶痞醋心 可服木香導飲丸以治之

7. 內外傷辨惑論三卷¹³⁾

1) 夫酒者大熱大毒氣味俱陽 乃無形之物也 若傷之止當發汗散出則愈矣 此最妙法也 其次 莫如利小便 二者乃上下分消其濕 何酒病之有

2) 酒性大熱 已傷元氣 而復重瀉之 況亦損腎水 眞陰及有形陰血俱為不足 如此陰血愈虛 眞水愈弱 陽毒之熱大旺 反增其陰火 是謂元氣消亡 七神無依 折人長命 不然即虛損之病成矣

3) 上下分消其濕 葛花解醒湯 主之

8. 格治餘論¹³⁾

1) 醇酒之性 大熱大毒 清香美味 既適於口 行氣和血 亦宜於體 由是飲者 不自覺其過於多也 不思肺屬金性畏火 其體危其位高為氣之主 腎之母 木之夫酒下咽膈 肺先受之 若是醇者理宜冷飲過於肺 入於胃然後 漸溫肺先得溫中之寒 可以補氣 一次得寒中之溫 可以養胃

2) 不知酒性喜升氣必隨之痰鬱於上 溺澁於下 肺受賊邪金體必躁恣飲寒涼 其熱內鬱肺氣得熱 必大傷耗其始也 病淺或嘔吐或自汗或瘡癢或鼻查或自泄或心脾痛尚可發散而去之 若其久也 病深矣 為酒渴為內疸為肺萎為內痔為鼓脹為失明或喘或哮或勞嗽為癩癩亦為難明之病

9. 古今醫鑒⁸⁾

夫酒者大熱大毒氣味俱陽 乃無形之物也 若傷之止當發散汗出則愈矣 其次莫如利小便 二者乃上下分消其濕 何酒病之有 今之酒氣者 往往服酒蒸丸 大熱之藥下之 又用牽牛大黃下之者 是無形元氣受病 反下有形陰血乖誤甚矣 酒性大熱 已傷元氣 而復重瀉之 沈亦損腎水眞陰及有形陰血俱為不足 如此則陰血愈虛眞水愈弱 陽毒之熱大旺 乃助其陰火 是謂元氣消亡 七神何衣折人長命 不然則虛損之病成矣 金匱要略云酒疸下之

久久爲黑疸 慎不可犯此戒不若令上下分消其濕
葛花解醒湯主之

10.丹溪治法心要²⁰⁾

因酒爲病 或嘔吐 或腹脹 用葛花解醒湯

11.醫學入門¹⁵⁾

酒客分消與調中；飲酒與水過者 宜上汗下滲
分消其濕 葛花解醒湯 微汗則愈 滲劑五苓散 調
中二陳湯 如久困於酒 或傷灰酒成積 腹痛大便
窘迫者 酒蒸黃連丸 香連丸 如傷酒嘔逆眩暈頭
痛如破者 補中益氣去白朮加半夏白芍芩栢乾葛
川芎 有塊者更加莪朮木香 如善飲每早長愛不吐
者 小調中湯最妙 一日三五次服之 亦可爲丸 如
醉飽入房以致蓄血 胃口時痛者 大調中湯 或八
物湯加砂仁之類 有痛飲不醉忽糟粕出前竅尿瀉
出後竅者 四物湯加海金沙木香檳榔木香桃仁數
服可安

12.萬病回春⁹⁾

1)酒者大熱大毒氣味俱陽乃無形之物也
2)葛花解醒湯 治飲酒太過嘔吐痰逆心煩神亂
胸膈痞塞手足戰搖飲食減少小便不利
3)論云此蓋不得已用 豈可恃賴 日日飲酒那
是方氣味辛溫偶因酒病服之則不損元氣 何者飲
酒病故也 若頻服之損人天年矣

13.東醫寶鑑⁷⁾

1)酒者五穀之津液米麵之華英 雖能益人 亦能
損人 何者 酒有大熱大毒 大寒凝滯惟酒不冰是
氣熱也 飲之昏亂易人本性是其毒也 若避風寒宜
血脈消邪氣引藥熱無過於酒也 若醉飲過度益傾
斗量毒氣攻心穿腸腐脇神昏錯謬目不見物 此則
喪生之本也(類聚)

2)酒雖與水同體 然傷於腸胃 則升之不散 降
之不下 鬱於氣分無形之位 蓋逐氣升降而半有消
耗之矣 今人飲醇酒則小便少此其可驗故治法宜
汗宜利小便爲上策(丹心)

3)酒過多三盃 多則傷五臟 亂性發狂(活人)

4)久飲酒者藏府積毒致令蒸筋傷神損壽(得效)

5)酒後傷風 身熱頭痛如破 防風通聖散加黃連

二錢連蠶蔥白十根(丹心)

6)飲酒過多成病 宜葛花解醒湯 酒蒸黃連丸
百杯丸 對金飲子 解酒化毒散 葛黃丸 升麻葛根
湯(入門)

7)酒痰；因飲酒不消 或酒後多飲茶水 但得
酒次日久吐飲食不美 嘔吐酸水 宜瑞竹堂化痰丸
香附瓜蒌青黛丸 對金飲子

8)酒泄

9)酒飲發熱 黃連解毒湯

10)酒積；酒傷成積者 面黃黑腹脹時嘔痰水
宜用對金飲子加葛根赤茯苓縮砂神曲煎服(局方)
葛花解醒湯常服亦佳

11)酒疸；必小便不利 其候心中熱足下熱 是
其證也 飲酒常多進食常少 心中懊懣 鼻燥足熱
是謂酒疸(直指)宜半溫半熱湯 梔子大黃湯 葛朮
湯 酒蒸黃連丸

14.證治要訣¹⁹⁾

1)傷酒惡心嘔逆吐出宿酒昏冒眩暈頭痛如破宜
衝和湯半夏茯苓湯 或理中湯加乾葛七分 或用木
子理中湯和縮脾飲 酒渴縮脾湯 或煎于葛湯調五
苓散 久困于酒逐成酒積腹痛泄瀉 或暴飲有灰酒
亦能致然 并宜酒蒸黃連丸 多飲結成酒癖腹中有
塊隨氣上下衝和湯加蓬朮半錢 酒停胸膈爲痰飲
者 枳實半夏湯加神曲麥蘗各半錢 衝和湯加半夏
一錢茯苓七分

2)多飲 酒積入脾 逐成酒黃

15.景岳全書¹⁶⁾

凡飲酒致傷者 多宜除濕利水 若或傷氣 亦宜
間用人蔘 然其證有三 不可不辨 一以酒濕傷脾
致生痰逆嘔吐 胸膈痞塞 飲食減少者 宜葛花解
醒湯 胃苓湯 五苓散之類主之 一以酒熱傷陰或
致發熱動血者 宜黃芩芍藥湯 清化飲 徒薪飲之
類主之 一以酒質傷臟致生泄瀉不已 若氣強力壯
者 惟五苓散 胃苓湯之類 皆可除濕止瀉 若因濕
生寒 以瀉傷飲 致損命門陽氣者 非胃關煎及五
德丸 九無丹之類不可

16.證治彙補¹⁴⁾

1)大意；酒之爲物氣熱而質濕(內經) 氣味俱

陽 陰寒之時 少飲能禦邪助神壯氣活血 恣飲則生痰益火 耗氣損精 令暴病暴死 世人認爲痰厥中臟而不知酒色者伐之所致也(三錫)

2)內因 ; 酒入於胃 則絡脈滿而經脈虛 酒氣穀氣相搏熱盛于中 故熱偏于身內熱而濁赤也(內經)

3)外症 ; 輕者 頭痛眩暈嘔吐痰逆神昏煩亂胸滿惡心飲食減少小便不利(醫鑑)甚者大醉之後忽然戰慄手足厥冷不省人事 名曰酒厥

4)酒傷各經 ; 酒循經絡 留着爲患 入肺則多噎多痰 入心則多笑多言 入肝則善怒有力 入脾則思睡 入腎則思淫及其久也 傷肺則變咳嗽渴傷心則變怔忡不寐 傷脾則變痞滿腹脹 傷肝則變脇痛吐血 傷腎則變腰軟陽萎 此五臟之受病也 又酒後汗多者胃受之 酒後面青者 膽受之 酒後多溺者 小腸受之 酒後溺赤者 膀胱受之 酒後積利者 大腸受之 數者皆能成病 惟胃與小腸受酒者汗多則從表而泄溺多則從便而出 所以善飲不醉而變病亦少也

5)酒毒留於肺者 緣肺爲清虛之臟 酒多則損其清虛之體 由是稠痰濁火薰灼其間 輕則外爲鼻查準赤內爲咳嗽痰火重則肺葉受傷爲胸痛脇脹咳唾膿血痰出腥穢肺癰潰爛宜化痰清肺庶可保全

6)酒毒傳於膽者 緣酒性清冽不隨下行 惟喜滲入從胃至膽爲清淨之腑同氣相求者也 其次雖入小腸膀胱化濁而出然酷烈之性 惟膽受之故濕熱鬱於經隧爲環跳疼痛 久成癰腫宜清徹之劑和解少陽之邪 或翼免焉

7)酒濕成疽 ; 醉臥卑濕之處 或食乳麵等物寒濕外鬱束其濕熱無從發洩而成痞脹酒疽初則兩目小便俱黃後則遍身牙爪亦然速宜分解濕熱久則難治

8)酒濕成痺 ; 好酒之人濕熱內生痰動火往往發爲口眼歪斜舌強肢廢混似風中血脈宜解酒除濕消痰清火不可以風藥悟治

9)治法 ; 當初醉昏妄時治宜發汗醒後則熱去濕留莫如利便乃上下分消其濕熱也 若傳於內臟則本病藥中兼去濕熱蓋酒之形質可化而濕熱之氣終久不變非若他症六淫七情傳變不齊

10)慎酒忌下

11)用藥 ; 初宜汗以二陳湯 繼宜滲以四苓散 其有他症俱以二方酌用

東垣治中酒製葛花解醒湯其方多用辛熱之味蓋爲飲酒時食冷物太過鬱其毒于胃中吐而煩躁不寧者說也

17.醫確²⁴⁾

酒者 其質則濕 其氣則熱 飲之而昏醉狂易者熱也 宜以汗去之 既醒則熱去而濕存宜利小便以去之 葛花解醒湯主之 若不先汗而違利小便則炎焰不肯下行濕去熱下去 若動大便尤謬 蓋酒之熱乃無形之氣也 病在陽分而妄下之 以傷其陰分是謂誅伐無過 汗以辛溫 佐以苦寒 酒疸下之 久則爲黑疸 憂宜切戒 傷酒惡心嘔逆昏眩頭痛衝和湯 酒渴 縮脾飲 久困于酒成酒積 腹痛泄瀉或暴飲有灰酒亦能致之并酒蒸黃連丸 多陰結成酒癖 腹中有塊隨氣上下衝和湯加蓬朮五分 停爲痰飲者 枳實半夏湯 乃膽熱既無可宜 又繼以酒之熱時之燥熱淫內熾故膽之熱汁滿而溢出于外以漸滲于經絡則身目皆黃 以其滲而出也 亦可轉驅而納之膀胱從溺道而消也

18.醫門寶鑑⁶⁾

1)治之大要 淺則發散而解其熱 深則利小便而去其濕

2)通用 對金飲子 葛花解醒湯 熱多者 小調中湯

III. 總括 및 考察

1. 酒의 性質과 飲酒의 生理

酒, 卽 술에 對한 歷代醫家들의 見解는 <黃帝內經>^{11,12)}에 처음 나오는데 “水穀之精 熟穀之液으로서 그 氣가 悍慄하며 清하다”하였으며, 巢는 <諸病源候論>¹⁰⁾에서 “有毒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煩毒悶亂하게 한다”하였고 또한 “宜通하여 不停聚하며 大熱하다”하여 酒의 性質을 有毒, 大熱하며 宜通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飲酒 後에 小便이 過多한 理由를 <黃帝內經>^{11,12)}에서 “酒는 性이 慄悍하여 後食而入하여 先食而出한다”고 說明하였다. 金代의 李東垣은 <內外傷辨惑論>¹³⁾에서 以上을 綜合하여 酒性은 大熱大毒하다 하였고, 이에 더하여 元代의 朱震亨은 <格治餘論>¹³⁾에서 “大熱大毒하고 清香美味하여 適當하면 行氣和血하여 몸에 이로우나 過하면 傷한다”하였다. 以後 大部分의 醫家^{7-9,15)}들은 이를 따라 “大熱大

毒 氣味俱陽 乃無形之物"이라 하였다. 그러나 清代의 李 等^{14,24)}은 "大熱하되 그 質은 濕하다"하여 濕의 性質이 있음을 觀察하였다. 以上을 綜合하면 酒의 性은 大熱大毒하며 그 氣가 悍悍하고 質은 濕한 物質임을 알 수 있다.

飲酒의 生理的 側面에 對하여서는 <黃帝內經>^{11,12)}에서 "그 氣가 悍悍하여 入胃中하면 胃脹上逆하여 滿于胸中 肝浮膽橫하므로 이때는 勇士와 같아서 不知避之한다"하였다. <聖濟總錄>²⁵⁾에서도 이를 따라 "先食而出하고 能히 通關節,走膚腠한다"하였다. 朱¹³⁾는 "酒가 清香美味하여 마시면 過한 것을 自覺하지 못한다"하였다. 또 許⁷⁾는 "酒는 그 大熱大毒으로 사람을 昏亂케하고 辟風寒,宣血脈,消邪氣,引藥熱한다"하였으며 李¹⁴⁾는 "氣味가 모두 陽이므로 陰寒之時에 조금 마시면 能히 禦邪,助神,壯氣,活血한다"하였다. 以上을 綜合하여볼 때, 飲酒하게 되면 그 大熱大毒,悍悍,濕한 性質로 先濕出하고 昏亂케하고 少飲하면 益人하여 能히 辟風寒,宣血脈,消邪氣,助神,壯氣,活血한다.

이는 西洋醫學에서 藥理學的으로도 마찬가지로 alcohol의 卽刻的인 效果는 神經系統에 나타나는데, 初期效果는 中樞神經系, 卽 腦皮質活動을 調節하거나 抑制시키는 어떤 皮質下構造들을 抑壓시키는 機轉으로 간소리,攻擊性, 過剩活動性과 大腦皮質의 增加된 興奮性으로 나타난다 하였고 또한 利尿,血管擴張 등의 作用을 지닌다하여 앞서 韓醫學的 各家의 見解와 符合된다 할 수 있다^{3,4)}.

또한 alcohol은 胃腸管에서 吸收된 後에 主로 血漿으로 運搬되고 體液,尿,肺包空氣 뿐만 아니라 全身 여러 器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alcohol은 蓄積되지 않으며 主로 肝에서 酸化되어 약 5% 以下 만이 化學的 變化없이 小便,汗,呼吸으로 排泄된다. 健康한 成人의 경우에 最大代謝量은 하루 약 16-180 g으로서 1g의 alcohol은 7cal/g의 熱量을 내고 脂肪,蛋白質,含水炭素 처럼 完全히 使用되나 營養에 도움을 주지 않고 다만 熱에너지源으로만 使用될 뿐이다^{1,3,4)}.

alcohol은 肝細胞의 미토콘드리아와 網狀細胞系에서 代謝되는데, alcohol dehydrogenase(ADH)에 의해 acetaldehyde로 分解되고 이 acetaldehyde는 acetaldehyde dehydroge-

nase(ALDH)에 의해 二酸化炭素와 물로 完全히 酸化된다. 또한 구연산회로를 通하여 脂肪酸 등의 生化學的으로 重要的 化合物로 轉換된다. 이러한 alcohol의 代謝過程은 飲酒로 인한 疾病의 發生에 重要的 因子로 作用하기도 한다^{1,2)}.

2. 酒傷證의 病理

酒를 過飲 또는 數飲하여 人體를 害하는 病理機轉에 對하여서는 <黃帝內經>¹¹⁾에서 "醉若飽以入房하면 氣聚於脾中 不得散하여 酒氣와 穀氣가 相搏하고 熱盛於中하므로 熱偏於身하여 內熱而溺赤한다"하고 또 酒氣盛하고 悍悍하여 "腎氣有衰 陽氣獨勝 故手足爲之熱也"한다하였다. 酒性이 熱하면서 悍悍하므로 脾中에서 不得散하고 또한 腎氣衰하여 各各 內熱而溺赤,手足熱 등을 發한다하였는데, 張¹⁸⁾ 또한 酒性이 熱하다는 說을 받아들여 '酒疸之候'에서 '心中熱 足下熱'한다 하였다.

巢¹⁰⁾는 '酒疸候'에서 "夫虛勞之人 若飲酒多 進穀少者 則胃內生熱 因大醉當風入水 則身目發黃 心中懊農"이라하여 胃內熱에 大醉當風入水로 酒疸을 發한다고 하였다. 또한 '酒癖候'에서 "因大飲酒後 渴而引飲無度 酒與飲俱不散 停滯在于脇肋下結聚成癖"이라하여 酒氣와 飲의 停滯不散으로 酒癖을 形成한다하였으며 "酒毒潰於腸胃 流溢經絡 使血脈充滿 令人煩毒昏亂 嘔吐無度"라하여 酒毒과 酒熱의 所作으로 煩毒昏亂,嘔吐 등을 發한다하였다. 또한 "酒與痰相搏 不能消散 故令腹滿不消"라하여 酒痰相搏으로 腹滿의 症狀을 發한다하였고, 綜合하여 酒傷諸證은 "酒性有毒 而復大熱 飲之過多 故毒熱氣滲溢經絡 浸漬臟腑 而生諸病也"라하여 毒熱의 所作이라 하였다. 또한 <聖濟總錄>²⁵⁾에서도 "停積不散 蘊滯于胃 散流諸脈 熏蒸臟腑"하여서 酒疸 등의 諸熱之病을 生한다하였다.

그러나 李¹³⁾는 酒病의 治療에 上下分消其濕 하라하여 濕에 依해 酒病이 生하는 것으로 認識하였다. 그리고 "陰血愈虛 眞水愈弱 陽毒之熱大旺 反增其陰火 . . . 虛損之病"이라하여 過飲으로 陰血虛의 虛火를 더욱 助長하여 虛損之病을 生한다하였다. 또한 '濕熱內蘊

脾胃大傷'하여 輕重의 症狀을 生한다²¹⁾하였다.

한편 朱는 <格治餘論>¹²⁾에서 “飲酒하면 肺先受之”하고, “痰鬱於上 溺溢於下 肺受賊邪 全體必躁 恣飲寒涼 其熱內鬱 肺氣得熱 必大傷 耗其始也”라하여 痰鬱,熱鬱로 인한 肺熱證 形態의 酒傷證을 說明하였고, 이에 더하여 酒熱之氣는 脾胃를 損傷시키며 內濕,內熱하거나 濕熱內盛하여 酒傷證을 發한다²²⁾하였다.

許⁷⁾는 “若醉飲過度 盆傾斗量 毒氣攻心 穿腸腐腦”이라 하여 酒毒氣의 所作으로 酒傷證을 일으킨다고 하였고 또한 “傷於腸胃 則升之不散 降之不下 鬱於氣分 無形之位 蓋逐氣升降而半有消耗之矣”라하여 傷腸胃하여 鬱於氣分하면 成酒病한다 하였으며 또 飲酒不消,酒傷成積 등으로 酒痰,酒積을 形成하거나 酒疸 等症을 發한다하였고 久飲酒者는 臟腑에 積毒하여 蒸筋,傷神,損壽한다고 하였다.

張¹⁶⁾은 “飲酒致傷者는 마땅히 除濕利水한다”하여 水濕에 依한 酒傷證을 說明하였고, 또한 酒傷證을 酒濕傷脾 致生痰逆,酒熱傷陰 或致發熱動血,酒質傷臟 致生泄瀉의 三類型으로 分類하여 그 治法을 論함으로서 酒의 性質이 濕,熱하므로 이로 因하여 酒傷證이 發함을 說하였고, 또 ‘因濕生寒 以瀉傷陰 致損命門陽氣者’라하여 寒濕,損命門陽氣로서도 酒傷證을 發할 수 있음을 示唆하였다. 李는 <證治彙補>¹⁴⁾에서 “恣飲則生痰益火耗氣損精 令暴病暴死”라하여 過飲하면 生痰益火와 耗氣損精하므로 暴病한다하였는데, 여기에 더하여 “酒毒留於肺---損氣清虛之體 由是稠痰濁火薰灼其間”, “寒濕外鬱束其濕熱 無從發洩而成痞脹酒疸”, “濕熱內生痰火---似中血脈”이라하여 酒傷證은 酒毒,酒熱,酒濕이 濕熱과 痰火를 生하여 發한다는 것을 補充하였다. 何²⁴⁾는 “飲之而昏醉狂易者熱也 宜以汗去之 既醒則熱去而濕存 宜利小便”이라하여 熱과 濕으로 因해 酒傷證이 發하는 것으로 說하였다. 周⁶⁾또한 酒傷治法에 解其熱,去其濕한다하여 何²⁴⁾와 見解를 같이 하였다.

以上으로 보아 酒는 그 性이 大熱 大毒하고 氣慄悍, 質濕하여 久飲 或은 暴飲하면 停滯不散하여 濕,熱,酒毒 或은 寒 等이 作하는 바가 되거나 서로 相搏하여 成病한다고 할 수 있다. 卽 內熱所作, 內濕所作, 濕熱內盛, 寒濕,

酒毒所爲, 痰火, 眞陰虛陽氣盛 等으로 因하여 酒傷諸證을 生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西洋醫學的으로는 alcohol의 病理的 作用은 alcohol 自體로서 나타내는 病理機轉과 그 代謝過程에서 생겨나는 代謝產物이나 關係酵素에 依한 病理機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lcohol自體가 人體에 미치는 影響으로서는, 첫째로 全身麻酔劑나 睡眠劑와 같은 非特異性 中樞神經抑制劑로서 모든 中樞神經系를 抑壓시킨다. 特히 統合機能을 가진 網狀系나 大腦皮質에서 銳敏하게 影響을 받는데, 統合機能의 支障으로 思考에 障礙를 받거나 運動機能이 低下되고 纖細한 判斷,記憶,集中力이 차차 低下된다. 또한 長期間 大量의 alcohol을 服用할 경우에는 神經精神科의 障礙, 卽 Wernicke氏 腦症,Korsakoff 精神症,多發性 神經炎 等이 나타나게 된다. 둘째로 循環器 中에 血管調節中樞를 抑壓하므로 主로 末梢皮膚 血管擴張을 일으켜 얼굴이 붉어지고 皮膚는 溫感을 느끼게 된다. 셋째로 胃酸의 分泌를 亢進시켜 慢性 胃炎 等の 病變을 惹起하기도 하며, 長期間의 飲酒는 다른 飲食物의 攝取를 不足하게 하여 營養不足이나 維生素 缺乏 等이 나타나게 된다. 또 胃腸刺戟으로 嘔吐症이 나타나기도 한다. 넷째로 筋肉의 損傷을 가져와서 骨格筋의 病變을 일으킨다. 다섯째로 性機能에도 影響을 미쳐 陰萎 및 不妊을 招來하고 性機能의 低下를 가져 온다⁴⁾.

Alcohol 代謝過程에서 생겨나는 副產物과 酵素에 依한 傷害로서 첫째로 代謝反應 매우 活潑하고 毒作用을 가지는 acetaldehyde가 血中과 肝細胞에서 增加하게되어 細胞傷害나 壞死가 일어나 肝腫大의 主要原因으로 作用한다. 둘째로는 acetaldehyde로 分解될 때 補助因子로 作用하는 NAD의 利用이 增加됨으로 因한 NADH 增加로서 이 NADH는 高酸血症과 尿酸排泄의 抑制로 痛風을 誘發하기도 하며 또 脂質代謝에 影響을 미쳐 脂肪肝을 일으킨다^{1,2)}.

Alcohol을 계속 攝取하면 耐性이 생겨서 慢性中毒症을 일으키며,急性的으로는 中毒으로 因한 昏睡狀態가 오기도 한다. 또한 alcohol 飲料에 含有되어 있는 醱酵副產物이나 acet-aldehyde 等の 前驅 物質 들의 相互作用으로 宿醉가 생기게 된다⁴⁾.

以上으로 보아 alcohol, 卽 ethanol 自體가 가지는 病理機轉은 韓醫學의 으로 主로 酒毒과 酒熱의 所作으로 볼 수 있으며, alcohol代謝過程의 副産物과 關係因子에 依한 病理機轉은 主로 酒熱, 酒濕의 相搏에 依한 病機로 比較될 수 있을 것으로 思慮된다.

3. 酒傷의 形證

酒의 過飲과 久飲으로 因하여 生하는 病證들에 對하여 歷代文獻을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黃帝內經>^{11,12)}에서는 '酒風'이라 하여 身熱, 解墮, 汗出, 惡風, 少氣 等證을 發한다 하였으며 또한 手足熱, 溺赤한다고 하였다.

張¹⁸⁾은 오직 '酒疸'란을 論하였는데 小便不利, 心中熱, 足下熱, 心中懊懣, 不能食, 時慾吐의 證狀을 가진다고 하였다.

巢¹⁰⁾는 酒疸, 酒瘕, 酒癖 等を 中心으로 論하였는데 酒疸에 對하여서는 張¹⁸⁾의 說을 따랐으며 酒瘕는 '思酒不得酒卽吐 多睡 不得能食'의 證으로, 酒癖은 '脇下強急而痛의 證으로 나타난다하였고 煩毒悶亂, 腹滿不消, 壯熱似傷寒, 酒漸惡寒, 吐利不安, 嘔逆 等の 諸證을 發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聖濟總錄>²⁵⁾에서는 酒疸에 對하여서만 論하였고, 張은 酒食不消散하면 傷寒과 같이 身熱, 惡寒, 戰慄, 頭痛, 腰脊強 或은 時嘔酸水, 心腹滿悶 等證을 發한다 하였다.

李¹³⁾는 虛損之病을 發한다하였고, 朱¹³⁾는 酒傷諸證에 對하여 商稅하게 다루어 病淺하면 嘔吐, 自汗, 瘡癢, 鼻查, 自泄, 心脾痛하고 病深하면 酒渴, 內疸, 肺委, 內痔, 鼓脹, 失明, 喘哮, 勞嗽, 癩癧 等の 難明之病을 發한다하였다. 龔⁸⁾은 李¹²⁾의 說을 따라 虛損之病을 發한다하였으며, 朱²⁰⁾는 嘔吐, 腹脹의 證狀을 나타낸다하였다. 李¹⁵⁾는 腹痛, 大便窘迫, 嘔逆, 頭痛 等證을 言及하였고, 龔⁹⁾은 飲酒太過하여 嘔吐痰逆, 心煩神亂, 胸膈痞塞, 手足戰搖, 飲食減少, 小便不利한 證狀에 葛花解醒湯을 用한다하여 그 形證을 說하였다.

許⁷⁾는 酒後傷風하면 身熱頭痛하고, 酒痰에는 飲酒食不味, 嘔吐酸水하고, 酒積에는 面黃黑, 腹脹, 時嘔痰水 等證이 나타난다하고, 또 酒疸證 等を 列舉하였다. 載¹⁹⁾는 傷酒하면 惡心, 嘔吐, 昏冒眩運, 頭痛하는데, 酒積을 成하면 腹痛, 泄瀉하고, 入脾하면 酒黃을 成한다 하였다.

張¹⁶⁾은 酒濕傷脾하면 生痰逆, 嘔吐, 胸膈痞塞, 飲食減少하고 酒熱傷陰하면 發熱動血하며 酒質傷臟하면 泄瀉한다하였다.

李¹⁴⁾는 外症으로 輕하면 頭痛, 眩暈, 嘔吐, 痰逆, 神昏煩亂, 胸滿, 惡心, 飲食減少, 小便不利하고 甚하면 '酒厥'하여 忽然戰慄, 手足厥冷, 不省人事한다고 說하였으며, 酒傷各經 卽 傷肺하면 咳嗽, 消渴하고, 傷心하면 怔忡不寐하고, 傷脾하면 痞滿疸脹하고, 傷肝하면 脇痛吐血하며, 傷腎하면 腰軟陽萎한다고 說하였으며, 酒毒이 肺에 머물면 輕하면 鼻查準赤, 咳嗽하고 重하면 胸痛, 脇脹, 咳唾膿血, 肺癰潰爛 等證을 發한다고 說하였으며, 酒濕이 或成疸하거나 口眼歪斜, 舌強, 肢廢로 成痺하기도 한다하였다.

何²⁴⁾는 酒疸, 酒積, 酒渴, 酒癖 等を 成한다하여 各各의 形證을 說하였다.

以上の 考察을 綜合하면 酒傷의 形證을 論하는데 各各 酒疸 卽 面目黃, 心中懊懣, 不能食, 時慾吐, 心中熱, 足下熱, 小便不利 等證을 일으키고, 酒積 卽 面黃黑, 腹脹, 時嘔痰水, 腹痛, 泄瀉 等證을 일으키며, 酒癖 卽 脇下弦急而痛의 證을 일으키거나 酒瘕 卽 思酒不得酒卽吐, 多睡, 不得能食의 證을 일으키고 酒渴, 酒痺와 飲食不美, 嘔吐酸水하는 酒痰證, 忽然戰慄, 手足厥冷, 人事不省하는 酒厥, 身熱解墮, 汗出惡風少氣하는 酒風 等證을 發한다.

以外에도 酒傷諸證에 嘔吐, 惡心, 頭痛, 脇痛(脇下弦急而痛), 腹滿(鼓脹), 腹痛, 不能食(飲食減少), 胸膈痞塞(胸滿), 煩毒悶亂(怔忡), 眩暈, 身熱, 惡寒, 咳嗽, 小便不利(尿赤), 自泄(利), 鼻查, 自汗, 消渴, 腰脊強而痛, 手足戰慄, 內疸, 肺委內痔, 失明, 哮喘, 癩癧, 勞嗽 等證을 生한다고 하였다.

西洋醫學의 으로 alcohol過飲으로 因한 疾患으로는 肝疾患, 卽 脂肪肝, 알콜性肝炎, 肝硬變과 알콜中毒症으로 일어나는 各種 疾患 等으로 볼 수 있다. 脂肪肝의 症狀은 普遍的으로 無症狀이나 肝腫大가 觸指되고 腹痛, 腸麻痺 等の 腹部症狀과 全身倦怠感, 惡心, 嘔吐 等과 때때로는 黃疸이 出現하기도 한다. 알콜性肝炎은 脂肪肝에 가까운 輕微한 症狀으로 疲勞, 食慾不振, 體重減少, 肝肥大가 있고 甚하여지면 嘔吐, 泄瀉, 肺炎 等の 感染症候, 肝機能不全, 原因不明의 發熱이나 腹痛, 黃疸, 腹水 等症과 營養缺乏症, 特히 비타민缺乏症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肝硬變의 症狀으로 肝肥大 및 硬化, 알콜中

毒症을 비롯하여 腹痛, 腹水, 胃腸管出血, 腦症, 皮膚血管腫, 羣丸萎縮, 性機能低下, 筋萎縮 등이 表現되기도 한다.^{1,2,5)}

以上으로 보아 酒疸은 알콜性肝炎 등에서 나타나는 黃疸 症狀에 符合되며 酒積은 알콜性肝炎이나 肝硬變에서 나타나는 腹水에 가까우며 酒癖은 脂肪肝이나 肝硬變에서의 肝腫大 및 硬化를 말하고 酒痰은 알콜로 因하여 發生하는 消化器, 特히 胃腸障礙로 볼 수 있으며 酒厥은 急性알콜中毒症이나 肝性腦症을 말하고 酒風은 알콜性肝炎 등에 나타나는 外症에 符合되는 것으로 思慮된다.

3. 酒傷의 治法

以上の 考察로서 酒傷의 形證이 酒疸, 酒積, 酒癖, 酒癩, 酒痺, 酒痰, 酒風, 酒厥 등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對한 歷代 各家의 治法을 考察하여 보았다.

張¹⁸⁾은 酒疸의 治法에 梔子大黃湯을 用한다 하여 清熱의 法을 用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張¹⁷⁾은 酒食所傷에 木香導飲丸, 進食丸을 用한다 하여 行氣, 消導를 治則으로 하였다.

李¹³⁾는 酒傷證에 上下分消其濕之法으로 葛花解醒湯을 用한다 하였고 朱¹³⁾는 酒傷病淺하면 發散으로 去之한다 하였다.

龔⁸⁾은 酒傷하면 마땅히 發散하고 다음은 利小便하며 上下分消其濕한다고 하고 大熱之藥으로 下하면 陰血과 眞陰을 傷하여 虛損之病에 이르게 한다고 說하였다. 또한 李¹³⁾의 說을 따라 上下分消其濕에 葛花解醒湯을 用한다 하였다. 朱²⁰⁾ 또한 李等^{8,12)}의 說을 따랐다.

李¹⁵⁾는 酒客治法에 上汗下滲分消其濕과 調中하라고 하였고 分消에는 葛花解醒湯으로 微汗하고, 滲劑에는 五苓散을 用하고, 調中에는 二陳湯을 用한다 하였다. 또 酒成積하여 腹痛, 大便窘迫하면 酒蒸黃連丸, 香連丸을, 傷酒嘔逆, 眩暈, 頭痛如破하면 補中益氣湯加味方을, 醉後入房하여 蓄血하면 大調中湯, 八物湯加味 등을 使用하라고 하였다.

龔⁹⁾은 李等^{8,13,20)}과 같이 葛花解醒湯으로 上下分消其濕하되 辛溫藥으로 損元氣하지 말라 하였다.

許⁷⁾는 龔⁸⁾과 같이 發汗, 利小便이 上策이라 하였고 酒後傷風에 防風通聖散加味를, 酒痰에

는 瑞竹堂化痰丸, 對金飲子 등을, 酒飲發熱에는 黃連解毒湯을, 酒積에 對金飲子加味, 葛花解醒湯, 酒疸에는 半溫半熱湯, 梔子大黃湯, 葛花湯, 酒蒸黃連丸 등을 用한다 하였다. 또한 李¹⁵⁾의 說을 따라 飲酒成病에는 葛花解醒湯, 酒蒸黃連丸, 百杯丸, 對金飲子, 解酒化毒散, 葛黃丸, 升麻葛根湯 등을 用한다 하였다.

載¹⁹⁾는 傷酒惡心嘔逆, 昏冒, 眩暈, 頭痛如破한 데는 衝和湯, 半夏茯苓湯, 理中湯加味를, 酒渴에는 縮脾湯을, 酒積에는 酒蒸黃連丸을, 酒癖에는 衝和湯加味를, 酒停胸膈爲痰飲에는 枳實半夏湯加味, 衝和湯加味를 用한다 하였다. 張¹⁶⁾은 酒濕傷脾한 데에 葛花解醒湯, 胃苓湯, 五苓散을 用하고, 酒熱傷陰한 데에는 黃芩芍藥湯, 清化飲을, 傷臟한 데는 五苓散, 胃苓湯之類를 用한다 하였다.

李¹⁴⁾는 酒毒留於肺한 者는 化痰, 清肺하고 酒毒傳於膽한 者는 清徹之劑로 和解하며 酒疸에 分解濕熱하고 酒濕成痺에는 解酒 除濕 消痰 清火하며 通治로 初에는 發汗하고 後에는 利小便, 上下分消其濕熱하여야 하며 下法을 忌하라고 하였으며 그 用藥으로 發汗에는 二陳湯을, 滲法에는 四苓散을 用하고 李¹³⁾의 用藥法을 引用하여 葛花解醒湯을 用하는데 辛熱之味가 多用되었으므로 久用하지 말라 하였다.

何²⁴⁾는 龔等^{7,8,14,15)}의 說을 따라 發汗 利小便하여야 하며 葛花解醒湯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各證의 方藥에는 載¹⁹⁾의 說을 따랐다. 周⁶⁾ 또한 龔等^{7,8,14,15,24)}의 說을 따라 初에는 病淺하면 發散하여 解其熱하고 病深하면 利小便하여 去其濕하여야 하며 對金飲子, 葛花解醒湯을 通用하고 熱多者는 小調中湯을 用한다.

以上の 治法에 對한 考察로서 酒傷의 諸證을 通治하는 데는 發散, 利小便^{6-8,14, 15,24)}, 上下分消其濕^{7-9,13-17,24)}하여야 하며, 方藥으로는 葛花解醒湯 或은 對金飲子 등을 活用한다. 또한 酒疸의 治法에는 分解濕熱¹⁴⁾하는 梔子大黃湯^{7,18)}, 半溫半熱湯, 酒蒸黃連湯⁸⁾ 등을 用하고 酒積에는 酒蒸黃連丸^{7,15,19)} 또는 酒傷通用方을 用하고 酒渴에는 衝和湯^{19,24)}을, 酒痰에는 瑞竹堂化痰丸 또는 對金飲子⁷⁾ 등을 用한다.

그러나 西洋醫學에서는 alcohol로 因한 疾病의 治療로서 먼저 禁酒를 指示하고 알콜性肝炎, 肝硬變에서는 營養食과 高熱量食 및 高蛋白食 등의 營養改善과 靜脈으로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의 投與 및 適切한 輸液療

法 等의 安定療法을 主로 하고 있으며 特히 肝硬變의 경우에는 非可逆의 病變으로 보기 때문에 合併症으로 나타나는 腹水, 肝性腦症, 胃腸管出血에 對한 外科的 療法 만을 爲主로 하고 있다¹⁾.

IV. 結 論

以上の 酒傷證에 對한 文獻 考察에서 다음 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酒는 性이 大熱大毒하며 그 氣는 慄悍하고 質은 濕하다. 이러한 性質로 後食而入하여 先食而出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昏亂케하나, 少飲하면 辟風寒, 宣血脈, 通關節, 消邪氣, 調神 壯氣하여 能히 益人한다.
2. 久飲 或은 暴飲酒하면 酒毒, 酒熱, 酒濕이 停滯不散하여 酒毒, 內熱, 內濕, 濕熱, 痰火, 眞陰虛陽氣盛 等으로서 酒傷諸證을 發한다.
3. 酒傷의 形證은 主로 酒疸, 酒積, 酒癥, 酒癰, 酒渴, 酒痺, 酒厥, 酒風 等으로 表現되며 嘔吐, 惡心, 頭痛, 脇下弦急而痛, 腹滿 或痛, 不能食, 胸膈痞塞, 煩悶, 眩暈, 身熱, 惡寒, 咳嗽, 鼻查, 小便不利, 泄利, 自汗, 手足戰慄 等の 酒傷諸證으로 나타난다.
4. 酒傷證의 治法으로는 發散, 利小便의 上下分消其濕의 大法으로서 葛花解醒湯, 對金飲子 等を 通用하고, 酒疸에는 分解濕熱하는 梔子大黃湯, 酒蒸黃連湯을 用하고, 酒積에는 酒蒸黃連丸이나 酒傷 通用方을 用하고, 酒渴에는 衝和湯을 用하며, 酒痰에는 瑞竹堂化痰丸 또는 對金飲子 等を 用한다.

參 考 文 獻

1. 高麗醫學出版部 譯 ; 肝膽道疾患, 서울, 高麗醫學, 1989, pp.356-369.
2. 金定濟 外 ; 東醫肝系內科學, 서울, 集文堂, 1986, pp.73-75, 259-260.
3. 李文鎬 ; 內科學, 서울, 學林社, 1986, p.2390.
4. 李宇宙 外 ; 藥理學講義, 서울, 高麗醫學, 1989, pp.356-369.
5. 이증달 ; 병리학, 서울, 고려의학, 1990, pp. 470-478.

6. 周命新 ; 醫門寶鑑, 서울, 杏林書院, 1975 pp.112-113.
7. 許 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0, pp. 131, 431-432, 492, 513.
8. 龔 信 ; 古今醫鑑, 江西,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0, pp. 97-98.
9. 龔廷賢 ; 增補萬病回春, 臺北, 大中國圖書公司, 1981, p.106.
10. 巢元方 ; 諸病源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397, 598, 619, 750-753.
11. 王 冰 註 ; 黃帝內經 素問, 서울, 高文社, 1972, pp.141, 349.
12. 王 冰 註 ; 黃帝內經 靈樞, 서울, 高文社, 1972, pp.106-107, 193-194.
13. 李東垣 ;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p. 56, 491.
14. 李用粹 ; 證治彙補, 臺北, 旋風出版社, 1978, pp.102-105.
15. 李 梈 ;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5, pp. 1542-1543.
16. 張景岳 ; 景岳全書, 臺北, 千項堂書局, 1980, p. 354.
17. 張子和 ; 儒門事親, 臺北, 旋風出版社, 1980, 권 4 , pp.13-14.
18. 張仲景 ;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436-438, 447.
19. 載元禮 ; 證治要訣 (醫部全錄內),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178-179.
20. 朱震亨 ; 丹溪治法心要, 臺北, 五州出版社, 1969, pp. 187, 308.
21. 李聰甫 ; 金元四大家學術思想之研究, 臺北,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 178, 179.
22. 宋鷺永 編 ; 中醫病因病理學, 서울, 一中社, 1983, p. 100.
23. 王新華 編 ; 中醫歷代醫論選, 汪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 521
24. 何夢瑤 ; 醫叢,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p. 98, 99.
25. 丹波元堅 ; 雜病廣要, 서울, 成輔社, 1986 pp. 687-693.